

건강한 자연의 푸르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그린알로에'

첫째도 신뢰! 둘째도 신뢰!
그린알로에의 성장배경에는 첫째도 신뢰! 둘째도 신뢰!
정직한 제품, 착한 제품만을 생산한다는 고객과의 약속이 신뢰로 이어지면서 오늘날의 그린알로에를 만들었다.

●7년 연속 '2020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알로에건강기능식품 부문 수상

그린알로에(대표이사 정광숙)는 소비자에게 가성비를 인정받아 '2020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에서 7년 연속 알로에건강기능식품 부문에 선정됐다. 조선일보 선정 2019 국가브랜드 대상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부문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화장품 브랜드 '알로에스테'는 신소재를 함유한 자연주의 화장품으로 매경미디어그룹의 '소비자 선정 스타브랜드 대상' 알로에화장품 부문 대상을 6년째 수상하고 있을 정도로 생산 제품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다.

그린알로에에는 정직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왔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합성착향료가 없는 '3무 제품'으로 경쟁력을 갖췄다.

●건강식품 '그린프리미엄베라골드 400' 3무(無)제품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건강식품 '그린프리미엄베라골드400'은

소제다. '알로에스테'는 피부 관리의 포인트인 '진정과 보습'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알로에의 효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과학적인 시스템을 반영해 출시한 알로에스테의 간판제품 '네추럴스킨케어100'은 알로에 추출물 100%와 올리브하이드로콜론산, 마린 콜라겐, 17가지 식물성분을 함유해 피부



대표적이다. 알로에베라겔즙으로 만든 이 제품은 1000ml를 기준으로 알로에베라겔 즙액을 400%나 함유했다. 하루에 면역다당체를 300mg 섭취할 수 있는 양으로 무엇보다 순수 알로에 즙액만으로 다당체 함량을 높였다는 점에서 소비자로부터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액상 타입의 경우 대부분 제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화학보존료를 넣는 반면 그린알로에는 자연 유래 천연보존물질을 함유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국내산 6년근 발효홍삼 농축액을 주성분으로 최근 출시된 홍삼제품도 마찬가지다. 홍삼의 기능을 증진시킨 진귀한 보약재와 합성부형제를 일체 함유하지 않은 진하게 달인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되며 판매가 급증 추세다.

●화장품 브랜드 '알로에스테' 신소재 함유 눈길

알로에전문기업 그린알로에의 화장품 브랜드 '알로에스테'는 신소재를 함유한 자연주의 화장품으로 매경미디어그룹의 '소비자 선정 스타브랜드 대상' 알로에화장품 부문 대상을 6년째 놓치지 않고 있다.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 '천연' 바람이 불자 그린알로에는 경피독의 주범인 화학보존성분 대신 식물유래원료를 사용하면 경쟁력을 높인다. 주원료인 알로에는 미국 농림부가 인증한 유기농 알로에와 신

강과 행복을!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알로에전문기업 그린알로에(대표 정광숙)는 지난 21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주최한 '희망2020 나눔캠페인' 출품식에 참여해 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눔으로 행복한 광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73일간의 모금 캠페인에 첫 기부기업으로 참석한 그린알로에는 9년째 해마다 지역 불우이웃에게 나눔의 기업정신을 실천해왔다.

정광숙 대표는 "그린알로에가 전국에서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한다"며 "그린알로에 사훈인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지역사회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정성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캠페인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나눔수록 행복이 배가 되듯이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지역민을 위해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며 "지역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망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린알로에는 지난해까지 해마다 자사 물품과 성금 등 총 8억 6600만원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실천하면서 지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현재 광주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106

처가 인정된 신소재를 복합적으로 함유함으로써 제품의 효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중국산 원료는 단 1%도 함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본 모토로 건강에 해로운 합성부형제도 최소화시켜 제품에 합성보존료·합성감미료·합성착향료가 없는

는 점에서 소비자로부터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액상 타입의 경우 대부분 제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화학보존료를 넣는 반면 그린알로에는 자연유래 천연보존물질을 함유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이외에도 세분화된 기능식품군을 선보이며 건



'3무 제품'으로 경쟁력을 갖췄다. 또한 식품의 제형도 식물성 연질 캡슐로 진화시키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시켜 국민건강에 일조하는 기업 이미지 구축에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다.

이 같은 원칙으로 소비자의 입소문을 통해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간판제품인 알로에베라겔즙으로 만든 '그린프리미엄베라골드400'이다. 이 제품은 1000ml를 기준으로 알로에베라겔 즙액이 400% 함유되어 있다. 하루에 면역다당체를 300mg 섭취할 수 있는 양으로 무엇보다 순수 알로에 즙액만으로 다당체 함량을 높였다

강기능식품계의 명품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근 출시된 홍삼제품도 국내산 6년근 발효홍삼 농축액을 주성분으로 홍삼의 기능을 증진시킨 진귀한 보약재와 합성부형제를 일체 함유하지 않은 진하게 달인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해 현대인들의 기력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주차미 그린알로에 연구소장은 "그린알로에는 정직한 원료로 원칙을 고수하는 장수기업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문수 기자 zkj0000@

진피층까지 수분을 보충하고 보습력을 유지시켜준다.

'알로에스테'는 또 피부 잡티를 매끈하게 감춰주는 색조제품도 식물유래원료를 사용하고 기초케어 에센스 성분, 식물유래



향료를 함유,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트렌드를 반영했다.

주차미 그린알로에 연구소장은 "그린알로에는 정직한 원료로 원칙을 고수하는 장수기업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세상을 푸르고 아름답게 이웃에게 건

개의 본사직영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린알로에 "건강한 제품 만들 것" 제품 원료로 미인종 유기농알로에 사용

주원료인 알로에는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를 공급받고 그 외 다양한 원료들은 국제식품첨가물 규격에 따른



원천이 바로 신뢰다. 제품마다 전문연구팀과 자체 기업의 연구진이 기능성 신소재를 발굴하고 임상실험을 통해 검증된 원료들을 조합해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주원료인 알로에는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만 공급받는다. 특히 중국산 원료는 단 1%도 함유하지 않는다. 고집스런 정직한 제품생산이 그린알로에를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장인정신이 듬뿍 담겨진 건강식품에는 합성보존료·합성감미료·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vera gold*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